

보조용언 구성 연결소의 통합적 분석

호 광 수
(조선대학교)

Ho, Kwang-Su. 2000. A Unified Analysis of the Conjunctions in the Auxiliary Verb Constructions. *Linguistics* 8-2, 217-235. The conjunctions in the Auxiliary Verb Constructions show some interesting properties in need of explanation. When they are not used in the Auxiliary Verb Constructions, these conjunctions have the original meaning as expected. On the other hand, when used in the Auxiliary Verb Constructions, they show the function of connecting the main verb and the auxiliary verbs rather than show their original meaning. In this study, we propose a unified account of the conjunctions in the Auxiliary Verb Constructions. By 'unified' we mean that all the conjunctions, in spite of the subclasses, have the same function of connecting the main verb and the auxiliary verb. We will show that our unified analysis enables us to explain some properties of the Auxiliary Verb Constructions in Korean. (Chosun University)

1. 머리말

보조용언 구성에 참여하는 연결소¹⁾의 유형은 연결어미 계열, 종결어미 계열,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 계열, 명사형 어미 계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연결소들은 보조용언 구문이 아닌 경우에는 그들의 고유 의미 기능을 담당한다. 그러나 이들이 보조용언 구성에 쓰이면, 본래 담당하던 고유 의미 기능은 약화되고,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연결시켜 주는 연결소의 기능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보조용언 구성에서만 볼 수 있는 연결소의 특징을 본고는 통사적 측면에서 통합적 기능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연결소의 통합적 기능이란 보조용언 구성에 참여하는 연결소들이 본래의 의미 기능에서 벗어나서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연결시켜 주는 기능을 말한다.²⁾

* 이 논문의 핵심적인 부분들에 대해 세심한 데까지 지적과 조언을 아끼지 않은 익명의 심사위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1

1. 연결소란 선행용언과 보조용언을 연결시켜 주는 매개체이다. 보조용언 구성에서 보조용언은 단독으로는 성립될 수 없고 항상 연결소와 결합하여야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이것은 보조용언 구성에서 연결소가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국어 보조용언 구성에 참여하는 연결소의 유형을 분류하고, 이들 연결소들의 통합적 기능을 고찰하기로 한다. 보조용언 구성에 참여하는 연결소들은 그들이 본래 담당하던 고유의 기능이 있다. 그런데 이들은 보조용언 구성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만 나타나는 확대된 연결소로서의 기능도 있다. 이것을 통사적 측면에서 연결소의 통합적 기능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즉 연결어미는 이들의 기능이 본래 연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연결소로의 처리에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종결어미나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 명사형 어미 등은 연결하는 것이 이들의 주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연결소로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이들 연결소들은 통사적으로 [선행용언+연결소+보조용언]의 틀을 가진 보조용언 구성이라는 환경에서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연결시켜 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연결어미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보조용언 구성에 참여하는 연결소들은 통합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보조용언 구성에 참여하는 연결소에 대한 연구는 접속어미나 연결어미 또는 종결어미 등과 같은 어미를 다루는 연구나 보조용언의 특징을 다루는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또한 몇몇 연구에서 일부 어미에 대한 개별적인 기능을 살펴보고 있으나 이들 연결소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미진했던 것으로 보인다.

선행 연구 중 다양한 유형의 연결소가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는 최현배(1937/91),³⁾ 권재일(1986),⁴⁾ 김석득(1992),⁵⁾ 민현식(1993),⁶⁾ 류시중(1994) 등을 들 수 있다.

2. 보조용언 구성에 참여하는 연결소들은 각각 결합 환경을 비롯하여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고는 이들 연결소들의 개별적인 특징은 그것대로 인정하고, 이들이 보조용언 구성에 참여할 경우 이들 연결소들의 기능을 포괄적으로 묶어 통합적 기능으로 설명하자는 것이다.

3. 최현배(1937/91)는 보조용언 구성의 연결소로 1) '-어/아(보다, 버리다, 주다, 드리다, 나타나다, 내다, 지다, 쌓다, 놓다, 가다, 오다, 있다), 2) '-게(하다, 되다), 3) '-지'(말다, 아니하다, 못하다), 4) '-고'(있다, 싶다, 지다), 5) '-기'(하다), 6) '-음'(직하다), 7) '-어야'(하다), 8) '-ㄴ/ㄹ'듯'(하다, 싶다), 9) '-ㄹ'뻬'(하다), 10) '-ㄴ/ㄹ'양'(하다), 11) '-ㄴ/ㄹ'체/척'(하다), 12) '-ㄹ'번'(하다), 13) '-ㄹ'만'(하다), 14) '-ㄹ'까(싶다), 15) '-는가'(보다, 싶다), 16) '-나'(보다) 등을 설정하고 있다.

최현배(1937/91)에서 보조용언의 범위가 비로소 체계를 갖추어 분류되고, 이후의 연구에서는 보조용언의 설정 여부와 범위를 설정할 때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가 하는 범위 한정的问题가 계속 논의되어 왔다.

4. 권재일(1986)은 못 갖춘 내포문 어미와 갖춘 내포문 어미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못 갖춘 내포문 어미로는 '-어', '-고', '-지', '-게(꿈)', '-도록', '-듯(이)', '-이', '-어야', '-으려(고)', '-고자', '-다시피', '-거니', '-으면', '-음직', '으랴~으랴', '-거니~거니', '-고~고', '-으면서~으면서', '-으나~으나', '-다가~다가', '-든지~든지', '-거나~거나' 등을, 갖춘 내포문 어미로는 '-고', '-고' 없이, '-나', '-을까', '-은/는가' 등 27개를 설정하고 있다.

5. 김석득(1992)은 '-어', '-고', '-지', '-게', '-어야', '-으면', '-ㄴ/ㄹ'듯', '-ㄴ/ㄹ'체', '-ㄹ'

이들 중 류시중(1994)이 최근 연구로서 보조용언의 범위를 비교적 포괄적으로 설정하면서 다양한 연결소의 유형을 보여 주고 있다.

류시중(1994)에서 다루고 있는 연결소의 유형을 보면, 1) 부사형(‘-어’, ‘-고’, ‘-지’, ‘-게’), 2) 관형사형(‘-은/는/을’), 3) 명사형(‘-기’, ‘-음’), 4) 접속형(‘-어야’, ‘-려고/자고(고자)’, ‘-다(고)’, ‘-면’), 5) 문장 종결형(‘-어’, ‘-나/는가/을까’, ‘-지’(아니하다), ‘-다/라/지/구나/나/랴(싶다)’) 등으로 나누고 있다.

이들 이외에 이상태(1985)는 ‘-어/아’, ‘-고’, ‘-지’, ‘-게’, ‘-는가’만을 연결소로 설정하고 있고, 김기혁(1986)은 ‘-아’, ‘-고’, ‘-어야’만을, 손세모돌(1996)은 ‘-어’, ‘-고’만을, 김미영(1998)은 ‘-어/아’만을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이 보조용언 구성에 참여하는 연결소의 유형에 대해 많은 견해의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보조용언의 범위 설정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 있다. 즉 연결소를 많이 설정하고 있는 연구에서는 보조용언의 범위를 넓게 잡아 그 수에 있어서도 훨씬 많은 것을 보여 주고 있다.⁷⁾

한편, 연결어미를 비롯한 어미를 다루고 있는 연구에서도 보조용언 구성의 연결소에 대한 통사·의미적 특징의 논의가 있었다. 먼저 연결어미의 의미적 특징을 다루고 있는 연구로는 김홍수(1977), 남기심(1978), 성기철(1979), 김승곤(1981), 서정수(1982), 전수태(1985), 배희임(1986), 홍종선(1986), 황병순(1986), 구현정(1987) 등이 있고, 통사적 특징은 양인석(1972), 김승원(1987) 등에서 다루고 있다. 그리고 임흥빈(1975), 김승곤(1986), 서정수(1986), 이시형(1990) 등에서는 통사·의미적 특징을 다루고 있다. 다음으로, 종결어미와 관련된 연구로는 김하수(1979), 박종갑(1987), 엄정호(1989), 고창운(1992) 등이 있다. 또한 이기갑(1981), 리의도(1990) 등은 연결어미의 역사적 변천을 고찰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들을 검토해 볼 때 보조용언 구성의 연결소에 대한 종합적 접근과 연결소의 통합적인 기능에 대한 고찰이 미진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

뵈’, ‘-르 만’, ‘-은상’, ‘-은성’, ‘-기는’, ‘-르까’, ‘-는가’ 등 15개를 설정하고 있다.

6. 민현식(1993)은 보조용언의 목록에 대한 재수립을 시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연결소는 ‘-어’, ‘-고’, ‘-고야’, ‘-지’, ‘-게’, ‘-어야’, ‘-도록’, ‘-든지/거나’, ‘-(있)으면’, ‘-으려/고자’, ‘-거나/으려나’, ‘-느/르 듯’, ‘-르 법’, ‘-느/르 양’, ‘-느/르 체/척’, ‘-르 뵈’, ‘-르 만’, ‘-느/르 것’, ‘-르 수’, ‘-기’, ‘-르까’, ‘-는가’, ‘-나’, ‘-지’(종결어미) 등 24개이다.

7. 근래 보조용언의 논의에서 다루고 있는 목록을 보면, 허용(1975): 25개, 유목상(1980): 25개, 이상태(1985): 23개, 권재일(1986): 72개, 김기혁(1986): 20개, 김성화(1990): 16개, 김영태(1990): 40개, 남기심·고영근(1991): 33개, 김석득(1992): 33개, 민현식(1993): 55개, 김주미(1993): 39개, 류시중(1994): 83개, 손세모돌(1996): 15개, 서정수(1996): 25개 등으로 각기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

서는 보조용언 구성에 참여하는 연결소의 개별적인 기능을 살피는 것은 물론 이들의 특징을 통합적인 기능으로 포괄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2. 연결소의 유형과 기능

보조용언 구성에서 가장 생산적인 연결소는 '-어/아'이다. 앞선 연구에서 용례의 차이는 있지만, '-어/아'를 보조용언의 연결소에서 제외하려고 한 논의는 아직까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어/아'를 제외한 다른 연결소들에 대해서는 그 동안 논의마다 의견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포괄적인 측면에서 연결소의 유형을 분류하면, 첫째 연결어미 계열, 둘째 종결어미 계열, 셋째 [관형사형+의존명사] 계열, 넷째 명사형 어미 계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연결소들은 본래는 독립된 의미 기능을 지닌 형태였으나 보조용언 구성에 참여하면서 그들의 의미 기능이 소실되거나 약화되어 나타난다. 이와 같이 이들이 본래의 의미 기능에서 벗어나 선행성분과 후행성분을 연결시켜 주는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 때의 연결소들을 포괄해서 통합적 기능으로 설명할 수 있다.

2.1. 연결어미 계열

연결어미 계열에 속하는 연결소로는 부사형 어미 또는 보조적 연결어미라고 일컬어 왔던 '-어/아', '-고', '-지', '-게'와 접속형 어미 '-어야', '-(으)려(고)/자(고)자', '-다(가)', '-면'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연결소들은 모두 접속형 어미로 쓰이던 것들이다.⁸⁾

- (1) a. 나는 사과를 깎아 먹는다.
 b. 그이는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썼다.
 c. 콩을 심으면 콩이 나지 팥이 날 수는 없다(한글학회, 1992: 3868).
 d. 차가 지나가게 사람들이 비켜섰다.
- (2) a. 책을 많이 읽어야 교양이 높아진다.
 b. 그들은 책을 읽으려고 텔레비전을 일체 보지 않았다.
 c. 그들이 거기에 갔다 돌아왔다.
 d. 내가 백만장자가 되면 너를 도와 주겠다.

8. 여기에서 들고 있는 예문들 중 일부는 서정수(1996)에서 인용하고 있다.

(1)은 보조적 연결어미로 발전하기 이전의 접속형인 ‘-어/아’, ‘-고’, ‘-지’, ‘-게’이고,⁹⁾ (2)는 접속형 ‘-어야’, ‘-(으)려(고)/자고(고자)’, ‘-다(가)’, ‘-면’이다. 이들과 다음의 (3~4)를 비교해 보면, 접속 구성과 보조용언 구성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 (3) a. 감나무 밑으로 내려가서 바람이라도 쇠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새의 선물: 290).
- b. 결국은 계단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잃어버린 너 上, 116).
- c. 안방 식구는 내다보지도 않는다(삼대 上, 26).
- d. “아네요 아버님. 저 오늘 여기 있게 해 주세요”(잃어버린 너 上, 108)
- (4) a.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야 된다.”(잃어버린 너 上, 135)
- b. 할아버지의 이 한 마디에 부모님께서 감히 설득조차 하려 들지 않으셨다(잃어버린 너 上, 14).
- c. 찬물을 조금씩 키었다 보면 얼마 안 가 물이 차갑다는 걸 모르게 된다(새의 선물: 187).
- d. 이런 날이면 학교에 가지 않고 아랫목에 엎드려서 붉은 콩이나 주워 먹으며 뒹굴었으면 싶다(새의 선물: 170).

(3~4)에서, (3)은 앞의 (1)과, 그리고 (4)는 (2)와 비교될 수 있는 구문이다. (1~2)와 (3~4) 구문의 가장 큰 특징은 연결소 다음에 후행하는 서술어의 자립성 여부이다. (1~2)의 접속 구성은 후행 서술어가 자립성을 가진 본용언이나, (3~4)의 보조용언 구성은 후행 서술어가 자립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들 구문간의 또 다른 특징은 (1~2)의 접속 구성의 연결소들은 구문에 따른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1a~d)의 경우, (1a)의 ‘-어/아’는 ‘방법’, (1b)의 ‘-고’는 ‘순차’, (1c)의 ‘-지’는 ‘상반’, (1d)의 ‘-게’는 ‘결과’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물론 이들 어미들의 의미는 앞뒤 문장과의 관계에서 파악될 수 있는 의미이며 독립적인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2a~d)의 경우도 (2a)의 ‘-어야’는 ‘필수 조건’, (2b)의 ‘-(으)려(고)’는 ‘의도, 목적’, (2c)의 ‘-다(가)’는 ‘전환’, (2d)의 ‘-(으)면’은 ‘조건’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곧 (1~2)의 구문들은 두 문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때 하나의 문장일 때의 접속어미를 대신하여 접속 부사가 그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9. (1c)의 접속형 ‘-지’의 구문이 보조용언 구성에 쓰이는 연결소 ‘-지’의 전신으로 볼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1c)의 구문이 다음과 같이 변형될 수 있는 데서 일단의 실마리를 찾아본다.

콩을 심으면 팔이 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1~2)의 연결소들은 각각 그들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선행절과 후행절을 어떤 관계로 이어 주는 구실을 하기 때문에 후행 서술어를 생략할 수 없다. 만약 후행 서술어를 생략하면 문장의 구조와 문맥 의미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에 비해, (3~4)의 연결소들은 일반적으로 문장에서 단순한 연결 기능 이외에 다른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¹⁰⁾ (3a~d)에서, (3a~b)의 각 연결소들은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단순히 연결시켜 주는 기능만 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후행하는 보조용언을 다음과 같이 생략하여도 전체적인 문맥 의미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3) a' . 감나무 밑으로 내려가서 바람을 쐐었다.

b' . 결국은 계단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러나 (3c~d)의 연결소들은 이들과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 (3c)의 '-지'는 부정문('-지 아니하다/못하다')이나 금지문('-지 말다')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3d)의 '-게'는 본용언과 보조용언 사이에서 사동 관계와 같은 어떤 역할을 담당한다. 이와 같이 이들은 (3a~b)에 비해 더 큰 자체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본 문장에 의미의 영향을 주고 있다.

이들 (3c)와 (3d) 간에도 차이는 있다. (3c)는 후행 서술어인 보조용언의 의미 비중이 (3a~b)보다 크기는 하나 이를 생략할 경우 보충 의미인 양상 의미의 생략만 이루어지고 구조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와는 달리 (3d)는 보조용언의 의미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보조용언을 생략하면 다음과 같이 구조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3) d' . “아네요 아버지. 저 오늘 여기 있겠습니다.”

보조용언의 생략이 일어나지 않은 (3d)에서는 본용언의 주어와 보조용언의 주어가 각각 표면 문장에 명백히 나타나 있다. 즉 본용언 '있는'의 주체는 화자인 '나'이고, '하다'의 주체는 '아버지'이다. 그러나 (3d')에서는 보조용언의 생략과 함께 복문에서 단문으로의 구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부 논의에서는 이 유형을 보조용언에서 제외시키고 있다(서정수, 1980: 67~75).

10. 이숙희(1992: 123~4)는 연결소가 단순 연결 기능 이외에 다른 의미 기능을 갖지 않을 때 이를 '허형태소(dummy morpheme)'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이숙희(1992)에서 허형태소는 '-어/아'로 제한하고 있다.

이상에서 (3a~d)는 연결소의 유형에 따라 보조용언 구성으로의 문법화 진전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 준다. 즉 (3a~b)는 보조용언 구성으로의 문법화가 거의 완성된 단계에 이른 경우이고, (3c~d)는 문법화가 덜 진행된 경우이다. 이들 중에서도 (3d)는 보조용언 구성으로의 문법화가 훨씬 덜 진행된 구문이다.

한편, (4a~d)의 연결소들은 접속어미의 흔적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4)의 구문에 나타나는 연결소들도 (2)의 연결소들에 비해 그 의미가 훨씬 약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4c)에서는 (2c)의 '전환' 의미를 거의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의미의 변화가 심하다.¹¹⁾ 이와 같이 (4)의 구문들은 연결소가 접속어미의 흔적 때문에, 일부 논의에서 이들을 보조용언 구성에서 제외시키려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도 (3a~d)에서처럼 문법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4a)는 '-어야'가 '되다, 하다'와 결합하여 '당위'의 양상 의미를 나타내고, (4b)는 '-(으)려(고)'가 '들다, 하다'와 결합하여 '의도, 바람'의 양상 의미를, (4c)는 '-다(가)'가 '보다'와 결합하여 '지속'의 양상 의미를, (4d)는 '-(으)면'이 '싶다, 하다'와 결합하여 '원망'의 양상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보조용언의 문법화 과정에 대해서는 호광수(1998)에서 다룬 바 있다.¹²⁾ 이곳에서는 국어 보조용언의 문법화를 보조용언화 단계, 접어화 단계, 문법소화 단계로 나누어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3a~d)의 유형에 해당하는 구문의 경우는 일부의 '-어지다' 구성이 접어화 단계에까지 진행된 것을 제외하고는 보조용언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3a~d)의 구문들은 보조용언화 단계 내에서 진전 과정을 살펴야 하는데, (3a~b)의 경우는 보조용언화가 완성된 단계이고, (3c~d)는 과정 중에 있는 경우이다. 이것은 (3a~b)의 구성들은 보조용언으로 정착한 것이고, (3c~d)의 구성들은 아직 완전하게 정착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¹³⁾

11. 연결소 '-다(가)'형의 경우 '보다' 구문은 접속어미에서 멀어졌으나, '못하다', '말다' 구문은 '전환'의 의미가 여전히 남아 있다.

a. 거실을 지나 현관으로 나오려다 말고 이층으로 가는 계단을 보았다(잃어버린 너 上, 108).

b. 신장으로 가는 나의 발길은 간헐다 못해 뽕뽕 떠가는 것만 같았다(잃어버린 너 上, 236).

12. 국어 보조용언의 문법화에 대한 논의는 손세모돌(1996: 285~430), 김명희(1996: 129~146), 고영진(1997: 71~101), 김미영(1998) 등을 참조할 수 있다.

13. 연결어미 계열의 연결소에 대한 역사적 발달 과정에 대해서는 호광수(1999)에서 일부 다룬 바 있다. 중세나 근대 국어에서 연결어미 계열의 연결소 중 '-어/아'는 현대 국어처럼 폭넓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외에 연결소 '-고'의 형태는 '-고싶다'의 용례와 극히 일부이지만 '-고 말다'의 용례를 발견할 수 있으며, '-지'와 '-게'의 형태는 현대 국어와 거의 유사하게 쓰이고 있다.

(i) a. 柴門뎨 籬남기 즘은 나치 드외야 가느니 = 柴門籬樹向千株<두해初 15: 14>

b. 그 나그네 띄여 어슬흐앗다가 썬야 나니 = 那客人射的昏了 蘇醒迴來<노해 上: 29>

이상에서 연결어미 계열의 연결소의 유형과 기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들 유형의 연결소들은 모두 접속어미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보조용언 구성으로 쓰일 경우에는 접속어미의 의미를 거의 발견할 수 없거나 접속어미에서 상당히 멀어져 있다. 그리하여 ‘-어/아, -고, -다(가)’ 등과 같이 접속어미의 의미를 거의 발견할 수 없는 연결소와 결합한 보조용언은 보조용언 범주로의 정착이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지, -게, -어야, -(으)려(고), -면’ 등과 같이 접속어미의 의미가 아직까지 상당히 남아 있는 연결소와 결합한 보조용언은 아직 보조용언 범주로의 정착이 완성되지는 않고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고는 이들 모두를 보조용언으로 보는 입장이며, 이들 보조용언 구성에 참여한 연결소들은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연결시켜 주는 통합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본다.

2.2. 종결어미 계열

종결어미 계열의 연결소로는 ‘-나’, ‘-ㄴ(은,는)가’, ‘-(으)려나’, ‘-(으)르까’, ‘-지’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중 ‘-지’는 ‘싶다’와만 연결되는 형태이고, 나머지는 ‘보다’, ‘싶다’, ‘하다’ 등과 비교적 자유롭게 연결된다. 이들 유형은 기원을 종결어미에 두고

c. 萬으랏 蟾光을 가며 이소물 보려 둘디어라 = 萬水蟾光 任去留<남명 上: 11>

d. 一乘이라 혼 거승 三乘을 여희여 바리고 一乘을 니르논디 아니라<석보 13: 33>

e. 그 나뭇 불휘톨 ... 드트리 드외이 보아 디거늘<석보 6: 30>

(ii) a. 불귀에도 이시려니와 아직 수이 알고 시브오니<침신 5: 11>

b. 당지치 다 디게야 놀애물 고타 드러 ... 식원코 흰솔한 세계를 다시 보고 말와라<송강-이 23>

(iii) a. 그리 너기디 마르쇼셔<월석 10: 5>

b. 二十리에 혼 亭舍을 깃게 호야 사르물 디결호야 두고 舍衛國에 도라와 精舍 지솔 터홀 어드니<석보 6: 23>

(i~iii)에서, (ia~e)는 연결소 ‘-어/아’와 결합하여 나타나는 보조용언 구문이고, (iia~b)는 ‘-고’와 결합하여 나타나는 ‘싶다, 말다’ 구문이다. 그리고 (iiaa~b)는 연결소 ‘-지’, ‘-게’와 결합하여 나타나는 보조용언 구문이다.

한편, 접속어미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는 연결소 중 ‘-(으)려(고)/고저’는 중세와 근대 국어에서 ‘하다’나 ‘싶다’와 결합하여 쓰이고 있다. 그러나 ‘-어야’, ‘-다(가)’, ‘-(으)면’ 등의 형태는 그 쓰임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iv) a. 이제 또 내 모뎨 드러다가 維那를 사모려 호실씨 들죽고 깃거호가니와<월석 8: 93>

b. 호족드리 드토아 겨집 삼고져 호거늘(豪族爭欲娶之)<동신 烈 1: 34>

c. 씨톨 씨오니 미츄미 나 7장 우르코져 식브니 簿譜는 옛메 불리 오물 서르 지즈는 노(束帶發狂欲大叫 簿譜何急來相仍)<두해 初 10: 28>

d. चु즈 두 낫 곳 머그면 죽제 밥 먹고져 시브니라<구황보: 6b>

있기 때문에 의미에서 그 흔적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다.

- (5) a. 여보게 이거 어떻겠나?
- b. 비가 내리는가?
- c. 내일은 그가 오려나?
- d. 그 사람이 누구일까?
- e. 자네는 그만 떠나지
- (6) a.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순분이는 드디어 이제 고생이 끝났나 보다 했다 (새의 선물: 64).
- b. 저녁 무렵 집에 돌아온 할머니는 혜자 이모가 나가는 것을 보고는 밤 근 무가 있는 날인가 보다 하고 여긴다(새의 선물: 266).
- c. 그가 우체국에 가는 걸 보니, 편지를 부치려나 보다.
- d. 어쩌다 대문간에 끼워진 부고를 불러 치면 부정탈까 봐 집안으로 들여놓 지 못했다(새의 선물: 352).
- e. 귀신 이야기에 열중했던 이모는 무슨 엉뚱한 얘기냐는 표정으로 경자 이 모를 보다가 조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지 싶어서 '아하'하고 고개를 끄 덕였다(새의 선물: 286).

(5)는 종결어미가 그 고유의 기능을 담당하면서 문장의 끝맺음을 하고 있는 구문이다. 이에 반해 (6)은 종결어미 뒤에 또 다른 서술어가 결합하여 '추측'의 구문이 되었다. 이 때 종결어미는 연결소의 기능을 하게 된다.

(5~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6)의 종결어미와 결합한 보조용언 구성에서 연결소인 종결어미는 (5)의 의미 특성을 상당히 가지고 있다. 이것은 연결어미 계열의 연결소에 비해, 종결어미 계열의 연결소가 문장의 의미에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5)의 종결어미가 (6)에 나타나 '보다' 등과 결합하여 쓰이게 되면, 문장 종결의 기능은 약화되어 나타나고, 통사 구조도 단문에서 복문으로 바뀌게 된다. 이와 같이 이들 종결어미들이 보조용언 구성에 쓰이게 되면, 종결 기능을 하던 것이 연결 기능을 하는 것으로 그 기능의 변화가 일어난다. 물론 종결어미가 보조용언 구문에 쓰인다고 해서 연결어미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종결어미가 보조용언 구문에 쓰여서 '추측' 등과 같은 의미를 나타낼 때에 한하여 연결 기능을 하는 연결소로 보자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보조용언 구성에 쓰이는 연결소를 통합적 기능의 연결소로 보고자하는 것이다.¹⁴⁾

이상에서 종결어미 계열의 연결소의 유형과 기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들 유형

의 연결소들은 보조용언 구문에서도 종결어미의 의미 특성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종결어미가 '보다' 등의 후행 서술어와 결합하여 보조용언 구문에 쓰이게 되면, 문장 종결 기능뿐만 아니라 '추측'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구문으로 바뀌게 된다. 이 때 종결어미는 종결이 아닌 연결 기능을 담당하게 되어 통합적 기능을 수행한다.

2.3. [관형사형 + 의존명사] 계열

[관형사형+의존명사] 계열은 그 동안 많은 논란이 되었던 유형으로, 최현배(1937/91), 김석득(1992), 민현식(1993), 류시중(1994) 등 일부 연구에서만 보조용언으로 다루어 왔다. 이들 연구에서 다루는 보조용언의 형태는 '의존명사+하다(싶다)'이고, 이 때 '관형사형 어미'는 연결어미(김석득, 1992)나 보조적 연결어미(류시중, 1994)로 보고 있다. 본고는 이 유형을 보조용언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데에는 위의 연구들과 입장을 같이한다. 그러나 이 유형에서 연결소와 보조용언에 대한 구분에는 입장을 달리한다.¹⁵⁾

14. 중세나 근대 국어에서부터 종결어미는 보조용언 구성의 연결소로 쓰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호광수, 1999: 151~178). 이들 중 '-(으)르까' 형이 가장 활발하게 쓰였고, 그 다음이 '-ㄴ(은,는)가' 형이다. 그리고 이들 이외의 다른 형태들은 그 쓰임의 증거를 찾기가 어렵다. '-(으)르까' 형과 '-ㄴ(은,는)가' 형의 경우에도 '하다, 싶다'와 결합한 구문은 쉽게 발견되나, '보다'와의 결합은 현대 국어에 와서야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 (i) a. 叔敖 | 나 노니다가 두 머리 가진 비암 보고 보니면 죽는다 하야놀 놈도 불가 하야 죽여 묻고 가 울어늘<소해 5: 5>
- b. 難陀 | 두리여 자바 너홀가 하야 닐오다<월석 7: 13>
- c. 파7리 괴운이 티와터 수미 되오 주글가 식브닐 염교 디허 푼 줌 하되만 머그면 죽재 도하리라<구간 2: 16>
- (ii) a. 家禮애 닐오다 履를 굴근 삼으로써 하라 하여시니 저컨댄 맛당히 儀禮를 조츠미 正호가 하노라<가례 6: 10>
- b. 예서 보매 잔을 날기는가 시버 뵈니<첩신 3: 5>
- c. 다만 冠帶 하시미 도홀가 시프외<첩신 7: 12>

(i)은 중세 국어의 예이고, (ii)는 근대 국어의 예이다. 한편, 이들 '하다, 싶다'와 달리 종결어미와 결합한 '보다' 구성은 '종결형+하다/싶다' 구성이 담당하던 '추측' 의미의 일부를 현대 국어로 넘어오면서 넘겨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언어 표현이 다양해지면서 나타나게 된 결과이다.

15. [관형사형+의존명사] 계열의 보조용언에 대해 한글학회(1992)는 의존명사를 '하다, '싶다' 등과 분리하고 있으며, '믿을 만 한 소식'에서처럼 두 형태를 띄어 쓰고 있다. 이와는 달리 국립국어연구원(1999)은 학교 문법에 기초하여 '의존명사'와 '하다'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단어로 간주하면서 '이 음식은 정말 먹을 만하다'와 같이 붙여 쓰기를 하고 있다.

또한 한글학회(1992)는 의존명사나 '하다, '싶다'를 다루면서 [관형사형+의존명사] 계열의

먼저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 계열은 다음과 같은 결합의 모습을 보인다.

- (7) ①[관형사형 어미(“-은, 는, 을”)] + ②[의존명사(دت, 양, 척, 체, 번(번), 만, 법, 성)] + ③[하다, 싶다]

(7)에서, ②와 ③을 결합하여 보조용언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사형 어미가 용언을 수식하게 되어 한국어 문법 체계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현행 정서법을 비롯하여 대다수의 연구에서도 ②와 ③이 결합된 형태를 보조용언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①의 ‘관형사형 어미’와 ②의 ‘의존명사’가 결합하여 연결어미(연결소)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처리하고,¹⁶⁾ ③의 ‘하다’는 형식용언이나 대용언의 특성을 지닌 보조용언으로, ‘싶다’는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용언으로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

이와 같이 처리하게 되면, 몇 가지 설명해야 할 문제가 생기는데,

첫째, 수식 관계에 있는 ‘관형사형 어미’와 ‘의존명사’를 하나로 묶어 연결소로 처리할 경우, 한국어 연결 체계에서 독특한 형태, 즉 명사구를 연결소로 인정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①의 관형사형 어미와 ②의 의존명사가 평상시에는 관형사형 어미가 의존명사를 수식하는 기능만을 수행하지만, 이들이 보조용언 구성에 쓰이게 되면 연결소라는 또 다른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즉 관형사형 어미와 의존명사의 결합 형태가 보조용언 구성에서는 뒤의 ‘하다’나 ‘싶다’를 연결해 주는 연결소의 기능을 담당한다는 것이다.¹⁷⁾

이와 같이 관형사형 어미와 의존명사의 결합 형태가 보조용언 구성에서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연결시켜 주는 연결소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다면, 보조용언으로는 ‘하다’와 ‘싶다’만을 설정할 수 있어 유사한 형태의 보조용언을 복잡하게 따로 설정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보조용언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반면, 국립국어연구원(1999)은 ‘만하다’, ‘성싶다’ 등 한 단어로 독립시켜서만 다루고 있다. 이것은 [관형사형+의존명사] 계열 보조용언의 형태소를 서로 다르게 보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16. 민현식(1993)도 본고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발음상으로도 이들 의존명사는 ‘하다’보다는 선행 관형형 어미 쪽에 폐쇄 연결을 보여 거의 어미화했다고 하였다.

17. 이러한 분석이 자칫 보조용언 구성의 설명을 위한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해석으로 보일 수도 있다. 물론 ‘관형사형 어미’와 ‘의존명사’를 하나로 결합시키는 것이 형태론적 분석과 상충되는 면은 있다. 그러나 통사론적 측면에서 볼 때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의 결합이 많은 편리한 점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의 결합 중에서 보조용언 구성에 참여하는 것에 한하여 연결소로 처리하자는 것이다.

둘째, 형식용언 ‘하다’는 명사나 어근, 부사 등과 자유롭게 결합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7)에서 ②와 ③의 결합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싶다’는 보조용언으로만 쓰이는 형태이다. 이 ‘싶다’는 연결어미 계열(‘-고’)이건 종결어미 계열(‘-다, -라, -지, -구나, -랴’)이건 항상 연결소를 동반해서 나타나야 하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만약 ‘싶다’가 ‘듯싶다’, ‘성싶다’처럼 의존명사와 결합된 형태를 취한다면 ‘싶다’의 일반 특성과 멀어지게 된다.¹⁸⁾ 그러므로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하다/싶다’의 결합 구문은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를 연결소로 하고, ‘하다’와 ‘싶다’를 보조용언으로 하는 보조용언 구문으로의 처리가 좋을 듯 하다. 물론 이들 구문의 연결소들도 본래는 그들의 고유 의미 기능을 담당한다.

- (8) a. 잘 아는 듯(체) 이야기를 한다(한글학회, 1992: 1184).
 b. 원, 될 범이나 한 소리요?(한글학회, 1992: 1744)
 c. 공부를 할 앞이면 마음을 가다듬어야지(한글학회, 1992: 2875).
 d. 보고도 못 본 체 단전을 부리다(국립국어연구원, 1999: 6060).
 e. 못 이기는 척 자리에 앉다(국립국어연구원, 1999: 6060).
- (9) a. 주부가 경애를 웃으며 바라보다가 놀리는 듯 하면서도 이렇게 타일렀다(삼대 上, 23).
 b. “말을 안 하고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을 땐 참을 만 하더니 막상 말을 해 놓고 보니 오늘밤 넘기기도 지루하네요.”(목마른 계절: 367)
 c. 노파는 몇 번인가 넘어질 뻔 하더니 아주 진이에게 몸을 실어 버린다(목마른 계절: 330).
 d. “궁금하겠지만 모른 척(체) 하고 계셔요.”(잃어버린 너 上, 252)
 e. 그도 할아버지가 부모님들보다 더 신경이 쓰이는 듯 싶었다(잃어버린 너 上, 42).
 f. 그렇게 해 놓고 보니 등하불명이란 말이 예 두고 맞힌 듯시피 도리어 살관없을 싶 싶었다(삼대 上, 109).

18. 국립국어연구원(1999: 1758, 3445)에서는 ‘듯싶다’, ‘성싶다’ 등도 ‘듯하다’ 등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보조용언으로 처리하고 있다.

a. 평일이라 결혼식에 하객이 많지 않을 듯싶다.

b. 보아하니 바쁜 사람은 아닌 싶 싶다.

심지어 국립국어연구원(1999)은 ‘싶다’의 항목을 다루면서 ‘듯싶다’, ‘성싶다’의 설명을 제외하고 있다. 이것은 이들이 ‘싶다’의 하위 구성이 아닌 독립된 단어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했듯이 관형사형 어미가 용언을 수식하고 있다는 문제 등의 미해결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

(8)은 [관형사형+의존명사]가 독자적으로 쓰인 구문인데, 보조용언 구성에 참여하는 의존명사들 중 ‘성’은 독자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만, 번(번)’ 등도 독자적으로 쓰이기보다는 ‘하다’와 결합하여 쓰이는 것이 훨씬 일반적이다. (9)는 [관형사형+의존명사]에 ‘하다’, ‘싶다’가 결합한 보조용언 구문이다. 이와 같이 이들 유형은 본래 [관형사형+의존명사]에 ‘하다, 싶다’가 결합하여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8)보다는 (9)가 더 자연스럽다.¹⁹⁾

이상에서 [관형사형+의존명사] 계열의 연결소의 유형과 기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들 유형은 [관형사형+의존명사]의 독특한 형태가 연결소로 기능하면서 보조용언 ‘하다, 싶다’ 등과 결합하여 보조용언 구성을 이루는 특징을 보인다.

2.4. 명사형 어미 계열

명사형 어미 계열의 연결소로는 ‘-기’를 들 수 있다. 이것도 본래부터 연결어미의 기능을 담당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보조용언 구성에 참여할 경우에 제한적으로 연결소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자는 것이다. 즉 명사형이 연결어미가 아닌 것은 확실하나, ‘하다’가 보조용언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선행하는 본용언과 이 ‘하다’를 연결하고 있는 명사형 어미 ‘-기’를 넓은 의미의 연결소로 보자는 것이다.

‘-기’ 구문은 일반적으로 명사형 ‘-기’와 ‘하다, 마련이다, 쉽다, 심상이다’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기’와 ‘하다’가 결합하는 구문일 때에는 이들 사이에 조사(주로 특수 조사)를 요구하는 특징이 있다.

- (10) a. 할머니의 계속되는 채근에 밥을 먹기는 하되 그 젓가락질이 모래알 해는 양 했다(새의 선물: 31).

19. [관형사형+의존명사] 계열도 중세와 근대 국어에서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때 주로 사용된 용례는 ‘듯 하다, 양 하다, 채 하다, 만 하다, 번(번)하다’ 등이고, 그 외의 ‘법하다, 듯 싶다, 성 싶다 등’은 아직 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 a. 本槩이며 滯靑이 또 無益한 듯 흔디라<가례 7: 26>
- b. 夫人이 새와 네 아들물 업게 호리라 2장 빚어 듯한 양 하고 조심하야 돌려<월석 2: 5>
- c. 김시 거준 모기 몰라 능히 니다 문호는 데 하여(金氏托以喉渴不能起)<동신 권 4: 33>
- d. 오라 여위오 곤의하야 병이 도릴가 심브거든 고깃즙과 보옥과 젓과 흑 고기를 저기 뼈 마술 도를 만 하고 = 久而羸 恐成疾及脯臚 或肉少許 助其滋味<번소 7: 18>
- e. 그 비 보롬을 조차 대히로 드러가 서너 번을 업될 번 하야 혼 섬의 다호며 보롬이 국치 거늘(漂舟入于大海 … 數四幾欲傾沈 然後抵孤島而風止)<태평 1: 53>

- b. 그것은 성실하고 선량한 사람의 삶에 드리워지는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 이기도 했다(새의 선물: 68).
- c. 이 사실은 나도 처음 듣는 일이었지만 이모가 원서를 낸 것까지는 사실 이라고 얼굴을 붉혀 가며 주장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진위를 가리지 않기로 했다(새의 선물: 35).
- d. 할머니는 허둥지둥 덤벼 대는 이모가 불안하기만 한 눈치였다(새의 선물: 279).

(10)은 '-기'와 '하다' 사이에 조사 '는, 도, 만, 조차, 까지' 등의 삽입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국어에서 명사형 어미 '-기'나 '-음'이 체언의 기능을 할 때 다음과 같이 조사를 요구하는 현상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 (11) a. 글 읽기가 재미있다.
- b. 날이 춥기를 바라오.
- c. 너의 신분이 학생임을 잊지 말아라.
- d. 장사는 신용을 얻음이 제일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마련이다', '십상이다' 등은 조사의 삽입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 (12) a. 사람은 어차피 한 번 죽기 마련이다(한글학회, 1992: 1280).
- b. 이 동네는 비만 오면 큰 물이 지기 십상이었다(한글학회, 1992: 2637).

(12)는 주격 조사 '가'의 삽입이 가능하기는 하나 이것도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앞의 명사형 어미 '-기'와는 다른 형태의 '-ㅁ/음직'이 있다. 이 유형은 명사형 어미 '-ㅁ/음'과 의존명사 '직'이 결합하여 연결소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 '-ㅁ/음직 하다' 구성에 대해 일부 연구에서는 '-ㅁ/음'과 '직하다'로 분석하기도 하나(최현배: 1937/91, 류시중: 1994 등), 이들은 '-ㅁ/음'과 '직'이 하나로 결합된 '-ㅁ/음직'의 형태로 분석해야 한다.²⁰ 즉 이 구문은 다음과 같이 [-ㅁ/음+직]이 연결소의

20. 한글학회(1992: 3292)도 '-음직'을 하나로 묶어 이음끝으로 처리하고 있다. 즉 “받침 있는 움직씨와 ‘있다’, ‘없다’의 줄기에 붙어, ‘하다’와 함께 쓰이어, ‘보기에 그렇게 할 만한 값어치가 있음’이나 ‘그렇게 할 듯 함’을 나타내는 이음끝”이라 설명하면서 다음의 예를 보이고 있

기능을 하면서 뒤의 '하다'와 결합하여 보조용언 구성을 이루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13) a. 벌써 왔음직 하다(한글학회, 1992: 3293).
- b. 약초였음직 한 풀을 보았다(한글학회, 1992: 3293).

만약 그렇치 않고 [-음+직+하다]의 형태를 '-음'과 '직하다'로 분리한다면, 다음과 같이 다른 성분의 삽입에 제약을 받게 된다.

- (13)' a. 벌써 왔음(*은, *도, *만, *조차, *까지) 직하다.
- b. 약초였음(*은, *도, *만, *조차, *까지) 직한 풀을 보았다.

(13)'의 제약은 '명사형+용언'의 다른 구문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다.

- (14) a. 자신을 과대 평가하기(는, 도, [?]만, 조차, 까지) 쉽다.
- b. 장사는 부지런함(이, 도, 만, 조차, 까지) 중요하다.

(13)'에서 명사형 '-음'과 '직하다'의 관계는 (14)처럼 단순히 체언과 용언이 연결된 관계가 아니다. 이들은 '-음'과 '직'이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강한 결합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이 '-ㅁ/음직'이라는 명사의 형태는 본용언과 보조용언('하다')을 연결시켜 주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²¹⁾

다.

- (i) a. 먹음직 한 떡
- b. 믿음직 한 사람
- c. 벌써 왔음직 하다

이와는 달리 국립국어연구원(1999: 5803)은 연결소 '-음직'이나 '-ㅁ직'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으며, '직하다'에 대해서만 보조형용사로 다루고 있다.

- (ii) a. 배고픈 새가 모이를 먹었음 직한데
- b. 웬만하면 믿음 직한데 속지 않는다.

이와 같이 다른 견해를 보이는 것은 보조용언의 범주뿐만 아니라 연결소에 대한 인식이 확립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1. 명사형 어미 계열의 연결소인 '-기'와 '-ㅁ/음직'도 중세와 근대 국어에서부터 그 쓰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 (i) 너브면 옷 지으매 남음이 잇고 또 풀기 쉽거니와<노해 上: 56>
- (ii) a. 동아리 뵈요물 코히 뻬 天子의 받조왕직 하니(炙背可以獻天子)<두해初 7: 13>
- b. 여러가짓 生死 煩惱 惡道の 險難 長遠에 간직 하며 건넌직 호물 아노니<법화 3:

이상에서 명사형 어미 계열의 연결소의 유형과 기능을 살펴보았다. 이 유형의 연결소인 명사형 '-기'와 '-ㅁ/음직'은 본래 연결어미가 아니지만 선행하는 본용언과 후행하는 '하다'를 연결하여 보조용언 구성을 이룰 때 넓은 의미의 연결소 기능을 담당한다. 그러므로 이 때의 연결소를 통합적 기능의 연결소라 할 수 있다.

3. 맺 음 말

이상에서 국어 보조용언 구성에 참여하는 연결소의 유형을 분류하고, 각 연결소를 통합적 기능으로 규명해 보았다.

이 연구에서 보조용언 구성에 나타나는 각 유형의 연결소들이 본래의 기능에서 벗어나 선행성분과 후행성분을 연결시켜 주는 기능을 담당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때 각 유형의 연결소들은 본래부터 연결어미의 기능을 하던 것도 있으나, 보조용언 구성을 이룬 뒤에 새로이 연결 기능을 부여받은 것도 있다. 그러므로 보조용언 구성에 참여하는 연결소들은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연결시켜 주는 통합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 연결소들은 연결 유형에 따라 본래의 의미 특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도 있으나, 대부분은 본래의 의미 특성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본래의 의미 특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보조용언의 범위에서 멀어지는 특징을 보인다.

각 연결소의 기능이 규명되면 국어 보조용언의 범위 설정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연결소를 많이 설정할수록 보조용언의 범위는 넓어지게 될 것이므로 연결소에 대한 수용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단문과 복문(보문)으로 양론되어 온 보조용언 구문의 통사 구조에 관한 문제에도 해결점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른 지면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언어는 생명력이 있어서 끊임없이 변화한다. 보조용언도 마찬가지이다. 이 연구는 시간의 연속선상에서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고 있는 보조용언 구성에 대한 특징의 일부를 규명함으로써 국어의 문법 체계를 세우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78>

(i)은 연결소 '-기'가 나타난 예이고, (ii)는 '-ㅁ/음직'이 나타난 예이다. 이들 구성은 현대 국어에서의 쓰임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참고문헌

- 고영진. 1997. 한국어의 문법화 과정 —풀이씨의 경우—, 국학자료원.
- 고창운. 1992/1995. “현대국어의 물음씨끝 연구”, 한국어의 토씨와 씨끝, 박이정.
- 구현정. 1987. “씨끝 {-아/어, -게, -지, -고}의 쓰임과 의미”, 건국어문학 11·12, 건국대.
- 국립국어연구원. 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 동아.
- 권재일. 1986. “의존동사의 문법적 성격”, 한글 194, 한글학회.
- 김기혁. 1986. 국어 보조동사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 김명희. 1996. “문법화의 틀에서 보는 보조용언구문”, 담화와 인지 2, 담화·인지 언어학회.
- 김미영. 1998. 국어 용언의 접어화, 한국문화사.
- 김석득. 1992. 우리말 형태론 —말본론—, 탑출판사.
- 김성화. 1990. 현대 국어의 상 연구,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 김승원. 1987. “형태소 {-아/어, -게, -지, -고}에 대한 통어적 기능 고찰”, 건국어문학 11·12, 건국대.
- 김승근. 1981. “한국어 연결형 어미의 의미분석 연구(1)”, 한글 173·174, 한글학회.
- _____. 1986. “이음씨끝 ‘-게’와 ‘-도록’의 의미와 통어적 기능”, 국어학 신연구 I, 탑출판사.
- 김영태. 1990. “의존용언의 범주와 어휘목록에 관한 시론”, 대구어문논총 8, 대구어문학회.
- 김주미. 1993. 현대국어의 메인풀이씨 구문 연구, 건국대 박사학위논문.
- 김하수. 1979. “‘-르까’의 의미와 통사적 특징”, 말 4, 연세대.
- 김홍수. 1977. “계기의 ‘-고’에 대하여”, 국어학 5, 국어학회.
- 남기십. 1978. “국어 연결어미의 화용론적 기능 —니열형 ‘-고’를 중심으로—”, 연세논총 15, 연세대.
- _____. 고영근 공저. 1985. 표준 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류시중. 1994. 한국어 보조용언 범주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리의도. 1990. 우리말 이음씨끝의 통시적 연구, 어문각.
- 민현식. 1993. “현대국어 보조용언 처리의 재검토”, 어문논집 3, 숙명여대.
- 박종갑. 1987. 국어 의문문의 의미 기능 연구, 영남대 박사학위논문.
- 배희임. 1986. “‘지-’와 피동”, 국어학 신연구 I, 탑출판사.
- 서정수. 1975. 동사 “하-”의 문법, 형설출판사.
- _____. 1980. “보조용언에 관한 연구”, 한양어문연구 2, 한양대.
- _____. 1982. “연결어미 {-고}와 {-어(서)}”, 언어와 언어학 8, 한국외국어대.
- _____. 1986. “‘-게’와 사동법”, 국어학 신연구 I, 탑출판사.
- _____. 1996. 국어 문법(수정 증보판), 한양대 출판부.
- 손세모들. 1996. 국어 보조용언 연구, 한국문화사.
- 양인석. 1972. *Korean Syntax*, 백학출판사.

- 엄정호. 1989. 종결어미와 보조동사의 통합 구문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유복상. 1980. "국어의 보조서술어에 관한 연구", 남광우박사회갑기념논총, 일조각.
 이기갑. 1981. "씨말 '-아'와 '-고'의 역사적 교체", 어학연구 17-2, 서울대.
 이상태. 1985. "국어 '보조용언'에 관한 연구", 논문집 39, 경북대.
 이숙희. 1992. *The Syntax and Semantics of Serial Verb Construction*,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Hanguk Publishers(1994).
 이시형. 1990. 한국어의 연결어미 '-어', '-고'에 관한 연구, 서강대 박사학위논문.
 임흥빈. 1975. "부정법 '-어'와 상대진술의 '-고'", 논문집 8, 국민대.
 전수태. 1985. "전제의 {아}와 계기의 {고}", 어문론집 24·25, 고려대.
 최현배. 1937/1991. 우리말본(열여섯번째 펴냄), 정음사.
 한글학회 지은. 1992. 우리말 큰사전, 어문각.
 허 용. 1975. 표준 문법, 신구문화사.
 호광수. 1998. 국어 보조용언 구성 연구, 조선대 박사학위논문.
 _____. 1999. "보조용언 '보다' 구성의 역사적 변천", 국어문학 34, 국어문화회.
 홍종신. 1986. 국어 체언화 구문의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황병순. 1986. "'-아'와 '-고'의 기능에 대하여", 국어학 신연구 I, 탑출판사.

참 고 자 료

—중세·근대 자료—

<약호(原典名)>	<간행 연대>
가례(家禮諺解)	1632
구간(救急簡易方)	1489
구황보(救荒補遺方)	1686
남명(南明集諺解)	1482
노해(老乞大諺解)	1670
동신(東國新續三綱行實圖)	1618
두해(杜詩諺解)	1481(초간본), 1632(중간본)
번소(翻譯小學)	1518
법화(法華經諺解)	1463
석보(釋譜詳節)	1449(초간본)
소해(小學諺解)	1586
송강-이(松江歌辭-李選本)	16세기 중엽
월석(月印釋譜)	1459
첩신(捷解新語)	1627

태평(太平廣記彙解)

미상

—현대 자료—

- 김윤희. 1987. 잃어버린 너(상), 도서출판 다나.
박완서. 1978. 목마른 계절, 수문서관.
염상섭. 1993. 삼대(상), 창작과 비평사.
은희경. 1995. 새의 선물, 문학 동네.
이문열. 1981. 짧은 날의 초상, 민음사.

501-759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375
조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E-mail : kwangsu65@hanmail.net
Tel: 011-9608-6519
(062) 230-6519